

Brilliant Future, Luminous IFEZ!

20주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IFEZ!



IFEZ

IFEZ JOURNAL

2023. 9+10 VOL.113

vol.113



www.ifezjournal.co.kr



영종진 해안 둘레길



IFEZ JOURNAL

2023. 9+10

IFEZ BIMONTHLY MAGAZINE



CONTENTS

2023. 9+10

IFEZ BIMONTHLY MAGAZINE

BUSINESS

- 04

SCENE
IFEZ 20주년
홍보영상 제작 현장
- 06

SPOTLIGHT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개최
- 08

HEADLINE
청라, 기후대응 도시숲과 테마공원 조성
SK바이오사이언스 송도 R&PD센터 착공
롯데바이오로직스 메가플랜트 유치
와이엠티 R&D센터 착공

PARTNERS

- 16

CASE STUDY
미국 보스턴 랩 센트럴
- 20

ACTIVITY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IFEZ 활동
- 24

PARTNERS
클로버스튜디오 탐방,
IFEZ 입주기업 활동

LIVING & CULTURE

- 30

TOUR
인천시 노을·야경 조망 명소
- 34

CITY
영종진 해안 둘레길
용유바다축제
- 38

CULTURE
글로벌센터 녹청자 도예 강좌
- 42

EVENT
컬러링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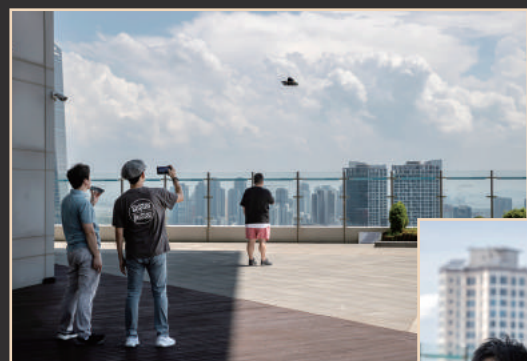
GO! 웹진
www.ifezjournal.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미래도시

IFEZ 20주년 홍보영상 제작현장

미~래~도~시~♪ 인천을 담았습니다

오는 10월 개청 20주년을 앞둔 IFEZ는 이를 알리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IFEZ의 비전을 담은 '미래도시 릴레이송'에 맞춰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전경과 주요 모습이 펼쳐진다.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진 영상 촬영현장을 따라가본다.



#01

지난 7월, 송도국제도시 IFEZ 청사에 영상촬영 드론이 떴다. 건물 주위를 맴돌던 드론은 29층 하늘정원을 선회하며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02

IFEZ 개청 20주년 홍보영상 제작에 참여한 김진용 IFEZ 청장은 만족스러운 장면이 연출될 때까지 '설레는 도시 청라, 비상하는 도시 영종, 앞서가는 도시 송도'라는 문구를 몇 번이고 외쳤다.



#03

그리고 이어진 다음 컷. 핵심 멘트 '미~래~도~시~♪'까지 OK! 내리찍는 햇빛 아래서 '미래도시' 로고가 그려진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30분간 촬영에 임한 김진용 IFEZ 청장은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04

이번 홍보영상의 핵심 키워드는 '미래도시'다. 음계명 '미·레·도·시'와 발음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해당 멜로디로 릴레이송을 제작하고 음악이 주가 되는 영상으로 기획됐다. 릴레이송 제작은 국내 광고음악을 다수 제작한 래퍼이자 작곡가 케이준이 맡았으며 누구나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중독성 강한 음악이 탄생했다. 이에 맞춰 김진용 IFEZ 청장의 멘트와 함께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의 주요 배경에서 각 등장인물이 노래를 이어부르는 모습이 교차로 편집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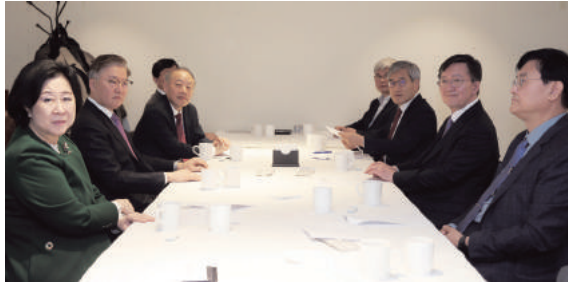
이번 홍보영상은 향후 개청 2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각종 행사, 홍보관, SNS 매체 등 다양한 곳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IFEZ 홈페이지(www.ifez.go.kr)와 유튜브 채널([youtube.com/@IFEZKorea](https://www.youtube.com/@IFEZKorea))에는 9월 중 업로드될 예정이다.

BEHIND THE SCENES



WHCF

WORLD HEALTH CITY FORUM



월드헬스시티포럼 조직위원회

월드헬스시티포럼 개최로 미래 스마트 건강 도시 구현하겠습니다

오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WHCF)’이 개최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해당 포럼은 ‘위험의 세계화, 어떻게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미래도시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WHCF)

개최	2023년 11월 20일 ~ 22일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장소	인천송도컨벤시아
주제	위험의 세계화, 어떻게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주최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	www.worldhealthcityforum.org

건강한 미래도시 구현 논의

코로나 팬데믹, 기후재앙, 저출생 초고령화 등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도시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가 최근 전 세계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개인과 사회, 도시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솔루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시와 IFEZ는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과 솔루션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 전 세계 학계, 정부, 공익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익 목적의 ‘월드헬스시티포럼’을 개설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도시 구현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IFEZ는 올해 2월, 포럼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유정복 인천시장(행사 부문), 유홍림 서울대 총장(보건의료 부문), 서승환 연세대 총장(도시 부문),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지속가능성 부문)이 각 부문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김진용 IFEZ 청장, 김영태 서울대병원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안명옥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이 조직위원으로 참여했다. 조직위원회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한 구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포럼을 개최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내·외신 기자회견 The 1st World Health City Forum Press Conference

| 주최 | 인천광역시 · 서울대학교 · 연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일자 | 2023년 7월 21일 (금) | Date | July 21, 2023 (Friday)



화려한 연사진과 유익한 토론 세션

월드헬스시티포럼은 세부적으로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지속가능성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스마트 헬스 시티 선도를 위한 학제 간, 부문 간 포괄적 융합과 협업을 논의하는 전문가 원탁토론도 펼쳐진다.

기조연설을 맡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미국 경제 및 사회 이론가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프랑스 경제 사회 이론가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교수 이치로 가와치(Ichiro Kawachi)가 세계 보건의료의 현황과 미래를 언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 팬데믹 극복을 위한 디지털&바이오 기술, 재난 극복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 공중보건을 위한 커뮤니티 설계 등 글로벌 보건 위기와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며 극복과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도출한다.

김진용 IFEZ 청장은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인천 송도에서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을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인천을 보건의료 선도 도시로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청라, 도시숲과 테마공원 조성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어갑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인천 서구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을 목적으로 올해 축구장 9개 규모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공원들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갖가지 새로운 테마로 거듭난다.



도시숲으로 만드는 자연친화도시

인천 서구는 지난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예산 60억 원을 들여 심곡천 녹지(청라 16호 경관녹지·청라동 101-14 일원)와 석남이음숲 구간(석남동 222-4 일원) 등 총 8ha 규모의 숲을 조성했다. 인근 산업단지와 대로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는 녹색 휴식 공간으로, 편백나무길과 메타세콰이어길, 이팝나무길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졌다. 올해도 사업을 이어간다.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100억 원을 투입해 청라 14·15호 경관녹지와 4·5·6·7호 완충녹지에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약 6.4ha 규모이며 축구장 9개 크기에 해당한다. 도시에 조성된 숲은 나무 1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1ha당 오염물질 168kg을 제거한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기후대응 도시숲이 조성되면 연간 1,075kg의 오염물질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열섬현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숲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중요한 공약사항”이라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023년)

대상지	청라 경관녹지 14·15호 청라 완충녹지 4·5·6·7호
규모	6.4ha
예산	100억 원
기대효과	연간 오염물질 1,075kg 제거



석남이음숲

힐링공간으로 거듭나는 청라 공원

한편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공원들은 갖가지 테마를 지닌 힐링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IFEZ는 청라 커널웨이와 이어진 창해·녹청문화공원 1.1km 구간에 미디어파사드와 광섬유 조명을 설치해 야간 경관조명을 운영한다. 창해·녹청문화공원 내 청라루비로 교각 하부와 입구에 각각 ‘내가 사는 행복, 청라’, ‘푸른 보석의 마을, 청라’라는 주제의 미디어파사드가 오후 9시와 10시 정각에 30분씩 운영된다.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조형물 ‘우주의 파동’에서는 밤하늘 별자리와 눈꽃, 푸른 바닷속 풍경이 펼쳐지며, 커널웨이에서는 형형색색 빛나는 보석과 꽃잎, 수로를 헤엄치는 물고기 조명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일몰 후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 밖에도 IFEZ는 청라호수공원 생태축제의 섬 테마원에 수국과 초화, 수목 등을 새로 심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선물했으며, 청라호수공원 내 힐링건강트랙을 재정비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청라호수공원 내 힐링건강트랙



청라호수공원 생태축제 섬 테마원



창해·녹청문화공원 야간 경관조명



SK바이오사이언스 R&PD 센터로 글로벌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송도 연구소 설립이 본격 가시화됐다.
지난 4월 글로벌 연구·공정 개발(R&PD) 센터가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5년 상반기 완공될 전망이다. 이 시점에 맞춰 본사도 송도로 이전할 예정이다.



최첨단 R&PD 센터 착공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21년 송도국제도시에
백신 연구개발 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자체적인 R&D
기술력과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백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사업 강화와 신규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서기 위해 입지적 장점을 갖춘 송도에 글로벌
연구·공정 개발 센터(R&PD)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총
3,257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으며 이후 송도 7공구
테크노파크 확대 단지 일대를 매매하고 올해 4월 착공에
들어갔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인천시는 이를 기념하며 지난 6월
‘글로벌 바이오 백신 생태계 조성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진용 IFEZ 청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만나 인천이
‘초격차 바이오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공고히 다졌다.

글로벌 백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R&PD 센터는 오는 2025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와 연구소가 송도로 이전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구부터 상업 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최첨단 R&PD 센터를 통해 향후 세계를 무대로 한
바이오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 확장과 신규 플랫폼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제기구와 국내외 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백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R&PD 센터에 글로벌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오픈 랩(Open Lab)을 설립한다.
오픈 랩은 각 기관이나 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연구 공간이다. 이를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물론 인천시가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관 및 다수의 산학 주체들과 상생하는 바이오 생태계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을 초격차 바이오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갖춘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적극
협력하며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글로벌 R&PD 센터를 구축해 국내외 파트너들과
신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송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



위치	송도 7공구 테크노파크 확대 단지 Sr14 필지(송도동 178-3)
면적	30,413.8㎡
사업비	3,257억 원
완공	2025년 예정

롯데바이오로직스 메가플랜트 유치로 ‘초격차 바이오 도시’ 완성합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송도국제도시에 등지를 틈다. 송도 11공구에 바이오 의약품 거대 생산공장 ‘메가플랜트’를 건립하고 관련 분야 벤처·중소기업과 협력하는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30억 달러 투자, 2025년 준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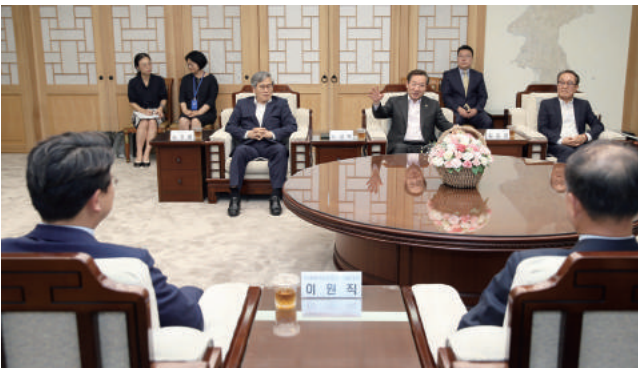
올해 초,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바이오 의약품 메가플랜트를 신설한다고 밝히며 해당 부지를 송도 11공구로 점찍고 IFEZ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 2030년까지 총 30억 달러(약 3조7천억 원)를 투자해 연간 12만L의 항체의약품 생산공장 3개소를 짓고, 총 36만L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6월 20일, IFEZ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메가플랜트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당사자들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연내 부지 확보 및 시설 착공을 위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롯데바이오로직스 메가플랜트는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 준공, 2026년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GMP) 승인을 거쳐 2027년부터 상업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4년에는 메가플랜트 3개소 완전 가동과 함께 매출액 30억 달러, 영업이익률 35%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벤처 이니셔티브’ 구축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메가플랜트의 역할을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바이오 의약품 분야 벤처·중소기업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바이오 캠퍼스’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바이오-벤처 이니셔티브(Bio-Venture Initiative)’를 운영하며 궁극적으로 국내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규 치료제 발굴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보유한 송도국제도시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국내 최고의 바이오 기업들과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들이 위치한 송도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절대적 위상을 지키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K-바이오 랩허브’ 조성사업과 제약 바이오 실용화 센터 착공 등 혁신적 연구개발과 우수한 인력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롯데바이오로직스까지 가세한다면 송도의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생태계는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식



롯데바이오로직스 메가플랜트

위치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산업시설용지 내
사업비	약 3 조 7,000 억 원
완공	2025년 예정
목표	생산량 총 36만L



“이번 투자유치로 인천은 ‘초격차 바이오 도시’라는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점이 되도록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투자유치와 산업육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글로벌 경쟁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시설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진용 IFEZ 청장



“송도 메가플랜트의 연내 착공을 목표로 모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매매 계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IFEZ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와이엠티(주) R&D 센터 착공, IFEZ 소부장 산업 발전을 선도합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와이엠티(YMT)가 연구 개발(R&D) 센터 건립의 첫 시작을 알렸다.

2025년 완공 예정인 R&D 센터는 전자부품 분야와 바이오 분야의 기술력을 높여

IFEZ의 소부장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부품·바이오 분야 기술 연구

6월 27일, 송도국제도시 5공구 일대(송도동 210-6)에서 와이엠티(주) R&D 센터 착공식이 진행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진용 IFEZ 청장과 전성욱 와이엠티(주)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와이엠티(주)는 전자업계의 기초부품인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화학소재와 동박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다. 이들의 제품은 애플·삼성의 스마트폰, 태블릿과 미국 테슬라, 중국 BYD의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등 전자부품 분야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R&D 센터는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B) Ks10-3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로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송도 산업·연구시설 용지 내 우수 기업 연구소 유치 공모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IFEZ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1년 6개월 만에 공사를 시작했다. 총 486억 원을 들여 전자부품 화학소재와 극동박,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금속 원단까지 다양한 사업의 기술 연구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와이엠티(주) R&D 센터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0-6

연면적 **25,874**㎡ (지하 1층~지상 6층)

사업비 486억 원

완공 2025년 예정



와이엠티(주) R&D 센터 조감도



‘100대 소부장 기업’ 기술력의 보고

와이엠티(주)는 일본, 독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금도금, 동도금 기술 시장에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갖췄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무전해 공법을 이용한 극동박(Ultra-thin Copper Foil)을 개발해 일본의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극동박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송도 R&D 센터가 개설되면 극동박, 5G 관련 화학소재, 100% 구리 원단을 이용한 항공마스크와 복합창상제 등 첨단소재 및 바이오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처럼 전자부품 소재와 바이오까지 최고 수준의 연구환경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IFEZ의 소부장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의 점유율이 높은 국내 화학소재 시장에서 세계 1등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도에 새로운 연구센터를 건립하려 합니다. 인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욱 와이엠티(주) 대표이사



“와이엠티의 R&D센터 착공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소부장 강소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추가 유치를 통해 IFEZ를 초일류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김진용 IFEZ 청장

U S A

LAB CENTRAL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꼽히는 미국 보스턴. 1천여 개 이상의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과 연구소, 병원, 대학교가 들어선 이곳에 바이오 전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유명 기관이 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가 조성하고 있는 ‘K-바이오 랩허브’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한 ‘랩 센트럴’을 살펴본다.

미국 랩 센트럴(LAB CENTRAL)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인 랩 센트럴은 비영리 법인으로,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공용 실험 공간과 법률, 특허, 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 Go to Website!
labcentral.org

Lab | Central



바이오 허브 최대의 이노베이션 센터

2012년 9월 설립된 랩 센트럴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 켄달 스퀘어(Kendall Square)에 위치한다. 이곳은 혁신의 역사를 가진 장소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과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이 1876년 쌍방향 장거리 전화를 만들었으며, 20세기에는 폴라로이드와 즉석 카메라가 개발된 곳이기도 하다.

랩 센트럴 설립자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Johannes Fruehauf)는 당초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가 소유한 2,600㎡ 규모의 건물 1층을 임대해 운영을 시작했다. 스타트업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개인 실험공간은 칸막이도 없고, 독립적인 연구실과 사무실 벽이 투명유리로 되어 있으며 회의실도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

또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특히 고가의 연구 장비와 다양한 실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단기간 내 성장을 도모한다. 현재 입주한 60여 개 스타트업들은 월 사용료만 내고 랩 센트럴의 공동 실험실과 연구 장비,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에 최적화

랩 센트럴은 경험과 자본이 적은 스타트업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연결해 준다. 이는 랩 센트럴의 위치적인 장점과도 연결된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곳’이라고 불리는 켄달 스퀘어에는 화이자, 모더나 등 세계 10대 제약회사 중 9개가 몰려 있으며 MIT와 하버드 대학, 각종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랩 센트럴과 협업 및 후원 관계를 맺고 있다.

제약사들은 랩 센트럴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 심포지엄, 기타 행사에 참석해 수많은 스타트업 중 한 곳을 선택한다. 이들이 가진 기술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거나 아예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랩 센트럴에 입주하는 것만으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니즈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적합한 법률가나 특허 변호사를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랩 센트럴의 네트워크 범위는 벤처캐피탈, 금융사, 법률회사, 특허회사, 제약기업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업과 조직에 해당한다.

한국의 랩 센트럴을 꿈꾸는 송도

랩 센트럴의 성공 스토리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 성공적인 모델을 이식하려는 각국의 시도가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2021년, 정부는 랩 센트럴을 벤치마킹한 ‘K-바이오 랩허브’ 조성계획을 세웠다. 창업보육, 시험분석, 특허·세무 지원 등 종합지원이 가능한 한국형 랩 센트럴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미 국내 우수 바이오 기업들과 병원, 연구소 등이 집약된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랩허브 완공을 목표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이들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차근차근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미국 랩 센트럴과 직접 MOU를 맺고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상호 교류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K-바이오 랩허브가 완공되면 바이오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바이오 위상 제고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AB CENTRAL

자료: Lab Central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

IFEZ는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글로벌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을 소개한다.

#01



‘K-콘텐츠 도시’ 등 7대 미래 비전 제시

IFEZ는 개청 20주년을 앞두고 ‘K-콘텐츠 도시’ 등 7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7월 IFEZ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는 발전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김진용 IFEZ 청장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국제금융도시’, ‘제4차 산업혁명 기업 도시’,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 ‘미래 스마트시티’, ‘K-콘텐츠 도시’, ‘관광·레저 허브도시’를 차례로 언급하며 7대 미래 비전을 통한 초일류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세부적으로 ‘글로벌미래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세계인이 자유로이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글로벌 미래 자유 도시를 건설하고, 제2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해 IT(정보기술), BT(바이오 기술), ST(항공기술), CT(문화기술) 등 이른바 ‘6T’가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품고 있다. 또한 K-바이오 육성을 통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바이오 허브도시 조성 및 K-콘텐츠의 생산기지로의 도약도 언급했으며 관광, 레저 허브 도시 조성 및 관련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과 168개의 섬이 있는 인천의 특성 및 현재 추진 중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IFEZ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IFEZ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02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국제 인증 획득

IFEZ가 전국 경제자유구역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해당 인증은 ISO가 경영 방침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규정과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면밀히 심사해 부여하는 국제 표준으로, IFEZ는 지난해 5월 중대재해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온 결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사업장 근로자 및 내·외부 고객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고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했다. 한편,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역시 같은 인증을 획득했으며, 청라호수공원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 청라공원사업단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03

IFEZ 영종관리과 신청사 개소

IFEZ는 영종관리과 신청사 사무실을 운서역 신청사로 이전했다. 영종관리과는 기존 영종 하늘문화센터에 위치해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지역(54.3km²)의 부동산, 환경, 건축, 공원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민원인들의 방문이 불편했다. 이에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운서역 공영주차장 건물 옥상(5층)에 연면적 392㎡ 규모의 새 청사를 건립하고 5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기존 청사였던 곳은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어학강좌, 취미생활, 인문학 등 신규 프로그램 진행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04

벨기에 겐트대학교와 부설 해양 연구소 유치 약속

IFEZ는 벨기에 겐트대학교 부설 해양 연구소인 마린유겐트(Marine@Ugent)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2년 설립된 마린유겐트는 교수 및 연구진 규모만 500여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해양 융복합연구소다. IFEZ는 ‘해양 도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에 마린유겐트 분원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간 협의해 왔으며, 사업 계획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린유겐트 연구소가 들어서면 글로벌 공동 해양 연구개발(R&D) 추진, 해양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인천을 비롯한 한국의 해양 과학 기술과 해양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05

‘청년-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성료

IFEZ와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진행한 ‘청년-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인천 관내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와 전문 지식 함양을 위해 기획됐으며, 인천 소재 기업 5개사와 3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청년과 스타트업들의 매칭데이를 시작으로, 청년 역량 강화 교육, 대기업·공공기관 인사담당자와의 만남, 최종 프레젠테이션 등이 진행됐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스타트업과 협업 과제를 수행 하면서 마케팅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실무를 경험했다.



#06

송도 영어통용도시 조성, 학원연합회와 업무협약

IFEZ는 송도 영어통용도시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영어통용도시 추진 공감대 형성, 사업 발굴 공동 노력,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방안 모색 등이며 앞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거주 외국인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준비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영어 교육을 고민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

#07

IFEZ 혁신성장 플랫폼 실무자 네트워크 개최

IFEZ는 글로벌 기업 인재 발굴을 위한 산·학·연·관 토론, ‘제10회 혁신성장 플랫폼 실무자 네트워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포스코이엔씨 등 IFEZ 대표 입주 기업의 인사 분야 실무자들과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대학들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인재 채용 의견을 나눴으며 채용 관련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기업과 대학, 기관이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서로 지속적인 협의를 약속했다.



#08

멀티스타디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건립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스타필드 청라의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스타필드 청라는 연면적 50만㎡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와 공연이 1년 내내 열리는 복합문화관람시설과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결합된 멀티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화된 호텔 객실과 인피니티풀은 물론 다양한 F&B와 다이닝바에서도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IFEZ는 청라의 랜드마크가 될 스타필드 청라가 IFEZ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9

송도 달빛공원에 RC 스포츠 경기장 조성

‘RC(Radio-Controlled, 무선조종) 스포츠 경기장’이 송도국제도시 달빛공원에 조성된다. IFEZ는 한국알씨스포츠협회와 RC 스포츠 경기장 조성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RC 스포츠 경기장에 필요한 자료 및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RC 스포츠 세계 대회, 아시아 대회 및 국내 대회를 유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IFEZ는 RC 스포츠 경기장을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경기 개최가 가능한 규모의 온·오프로드 서킷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늘 위 드론 관제 시스템으로 미래 드론 시장 선도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기업이 있다.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로버스튜디오(CLROBUR)가 그 주인공. 드론의 자율 운항을 지원하는 클로버스튜디오의 또 다른 이름은 ‘하늘 위 관제탑’이다.



(주)클로버스튜디오

설립일	2019년 7월 25일
업종	드론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	DROW GCP(드론 지상관제 플랫폼)
주소	인천광역시 컨벤시아대로 204 인스타 1동 403호



◀ Go to  YouTube

지금 바로 휴대폰으로 스캔해보세요!
IFEZ 유튜브에서 클로버스튜디오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3D 지도 기반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불리는 드론은 도시의 기능과 편의를 증대시켜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준다. 활용 범위는 군사용부터 건설, 물류, 교통 관측, 농업 촬영 등 각종 분야에 활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점차 안전한 비행을 위한 관제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클로버스튜디오는 웹 기반 지상 통합관제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드론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기업으로 통한다. 기존의 드론 서비스들이 2D 지도 구현으로 정확한 데이터 확보와 비행 스케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 클로버스튜디오는 3D 맵 기반으로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DROW 4D GCP)을 개발한 국내 최초 기업이다.

드론 통합 관제플랫폼은 다양한 무인비행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통합 제어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하늘을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리듯 비행경로를 그리면, 드론이 비행경로를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최적의 비행경로를 설계하고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위험시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를 지닌다. 또 다른 서비스인 군집비행 시뮬레이터 ‘DROW-World’는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실내·외에서 비행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 공연과 함께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아트쇼로 활용되고 있다.





1



2



3

- 1 CES 2023 박람회에서 국토부장관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수소연료전지 드론에 대해 설명하는 최태인 대표.
- 3 울주군 드론통합관제센터에서 클로버스튜디오의 기술력을 설명하고 있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드론 응용 서비스 전개

클로버스튜디오는 제품의 구현 단계부터 문제점 해결까지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한다. 드론 산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배경에는 인천 스마트시티 연구소에서 드론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플랫폼 개발에 열정을 쏟은 최태인 대표이사가 있었다.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과 세계를 주도할 드론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다는 다짐 하나로 창업했다. 올해 4년 차, 클로버스튜디오는 드론 관제 관련 특허와 플랫폼을 자체 보유한 기업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23에서 2021년,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클로버스튜디오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서울교통공사 등 다양한 협력기관들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클로버스튜디오는 또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간다. 여객 운송이 가능한 도심항공교통(UAM) 시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근 UAM 관제플랫폼 항공관제(Air Traffic Management, ATM) 소프트웨어 1위 업체 프리퀀티스(FREQUENTIS), 인공관제 업체 원스카이(OneSky)와 업무 협력을 추진 중이다. 또한 드론 제작 하드웨어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클로버스튜디오는 창업 당시의 초심을 간직하되 미래 시장을 예측해 거침없이 미래로 나아갈 계획이다. 전 세계 드론 관제탑 사령부가 될 그날을 꿈꾸는 클로버스튜디오의 도전은 계속된다.

MINI INTERVIEW



최태인
(주)클로버스튜디오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클로버스튜디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9년 7월에 창업한 클로버스튜디오는 기업부설 연구소와 영업장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클로버 (CLROBUR)’는 ‘크게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클’을 한글 발음으로 음역한 ‘CL’과 라틴어로 ‘참나무’를 뜻하는 ‘ROBUR’를 조합한 합성어입니다. 공간을 창조하고 서비스 하는 드론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큰 나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클로버스튜디오는 하늘 위 드론의 고속 도로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갖고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과는 다른 클로버스튜디오만의 특징점이 있다면요?

클로버스튜디오는 독보적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허 ‘지능형 드론 비행계획 수립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드론 관제 시스템’과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무인 이동체 4차원 경로 표출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2021년 PCT 국제출원을 거쳐 2022년 미국으로부터 정식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특허대상 기술이 복합적이어서 이를 세분화했습니다.

CES(Consumer Technology Show)에서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하며 클로버스튜디오의 이름을 널리 알렸죠. 뛰어난 기술력은 부설 연구소에서 비롯된 산물일 텐데요. 현재는 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나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제품은 늘 문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클로버스튜디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늘 새로운 트렌드와 시장변화를 살피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구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최종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클로버스튜디오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요?

드론 응용 서비스 비즈니스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와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드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경험을 갖춘 인력이 늘 필요한 분야입니다. 급변하는 경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는 조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향후 미국에 지사를 설립해 미국 시장을 필두로 전 세계를 개척할 꿈도 꾸고 있습니다.



◀ Go to Website!

www.clorobur.com

파블로항공, 美 NASA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파블로항공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도심 비행환경
안정성 개선 프로젝트인 ‘BE-WindEE’에 수행사로 참여해
약 8개월간 비행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BE-WindEE’ 프로젝트는 기상 센서와 데이터 모니터링
서비스 2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도심지역의 복잡한
미기상 데이터 감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도심지역 저고도 날씨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풍속 예측 모델을 적용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운영의 안정성 향상에 목표를 두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파블로항공은 자사의 배송용 드론에 풍속 센서를 장착하고,
스마트모빌리티 통합관제시스템(PAMNet, PABLO AIR Mobility
Network)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역할을 맡았다.



설립일	2018년 8월 2일
업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품/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행사 대행, 제품 디자인/무인항공기 등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82 5층



(주)아이센스, 美 전용 제품 FDA 시판전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 점유율 1위 혈당측정기 전문기업 아이센스가
미국에서도 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자가혈당측정기(이하 BGM) ‘릴라이온 프리미어 블루
(ReliOn Premier BLU Blood Glucose Monitoring System)’의 백라이트를
개선한 업그레이드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전
허가(510k)를 획득했다. ‘릴라이온 프리미어 블루’는
미국 판매용으로 만들어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제품으로,
무선 블루투스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0.5 마이크로리터의 아주 작은 혈액 샘플만으로 단 5초 만에
정확한 결과를 내놓는다. 가로 1.97인치, 세로 4.96인치,
높이 6.38인치의 크기로 보관과 이동이 간편한 것도 제품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설립일	2000년 5월 4일
업종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제품/사업	의료환경산업용 바이오센서(혈당측정기), 계측장비 제조, 도소매, 개발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75번길 12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협약 체결했습니다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액체생검 공동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암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한
유전체 및 후성유전체 기반 액체생검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이원다이애그노믹스의
에피캐치(EpiCatch) 컨소시엄 참여도 확정해 대장암 및 폐암
메틸화 마커 발굴 연구를 위한 협력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원다이애그노믹스가 주관하는 에피캐치(EpiCatch) 컨소시엄은
국내외 병원 및 연구시설이 참여해 후생유전학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암 진단뿐만
아니라 약물반응과 질병 예측은 물론 신약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타깃 선정과 검증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설립일	2013년 5월 6일
업종	유전체연구 및 개발업
제품/사업	유전체 검사,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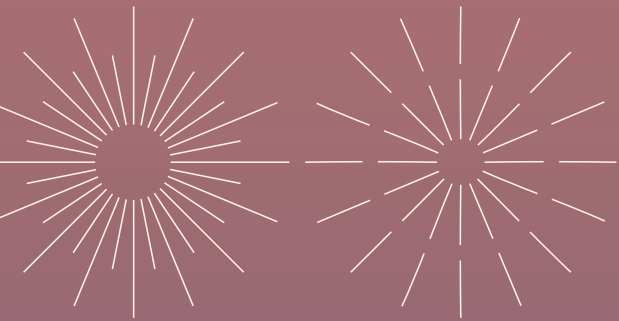
삼성바이오에피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최근 2년간 총 4건의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ESG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ISO 45001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의 사전
예측 및 예방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역량을 입증한 기업에
부여하는 국제표준 인증제도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
업계 관련 각종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인증
획득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인정받게
됐다. 이로써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환경 경영(ISO 14001),
에너지 경영(ISO 50001) 인증과 더불어 올해 정보보호 경영(ISO
27001)과 안전보건 경영(ISO 45001) 인증까지 최근 2년간 총 4개의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ISO)을 획득하게 됐다.



설립일	2012년 2월 28일
업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제품/사업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도소매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6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해당 공모에 선정된 인천시가 ‘노을·야경 조망 명소’를 추려 홍보에 나섰다. 송도, 개항장, 월미도 일대 24곳 중 시민과 관광객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된 핫플레이스를 살펴본다.

밤마다 설레는 인천 노을·야경 명소로 떠나자



01

Central Park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는 송도를 상징하는 대표 랜드마크다. 면적만 63,390㎡에 달하며 총 길이는 1.8km다. 국내 최초의 해수공원으로, 담수호가 공원 한가운데를 가로지른다. 산책로가 길고 호수가 넓어 도심에서 여유를 즐기기에 좋다. 밤이 되면 호수에 초승달 모양의 보트가 떠다니며 신비로운 야경을 만들어낸다. 이번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할 만큼 예쁜 야경으로 유명하다. 센트럴파크 한편에 자리한 한옥마을에서는 고즈넉한 밤 풍경을 만날 수 있다.

| 주소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0

02

롱비치파크

Long Beach Park

지난해 12월, 송도국제도시에 새로운 노을 명소가 생겨났다. 송도 8공구 끄트머리에 조성된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은 해변을 따라 산책로가 길게 늘어져 있어 ‘롱비치파크’라고 불린다. 곳곳에 자리한 벤치와 전망대에서 멍하니 바다 풍경을 보며 힐링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는 일몰 시간. 바다 위로 반짝이던 해가 인천대교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붉은색으로 물들며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된다.

| 주소 |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8-2



03

월미테마파크

Wolmi Theme Park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인천 대표 관광지 월미도. 그중에서도 유독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이 있다. 통통 튀는 디스코 팡팡과 아찔한 바이킹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는 월미테마파크는 월미도의 상징과도 같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테마파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된다. 그렇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다. 화려하게 빛나는 회전목마와 대관람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

| 주소 | 인천 중구 월미문화로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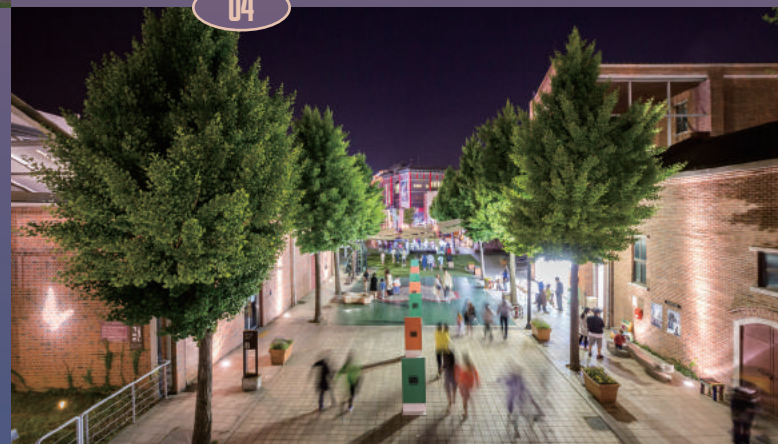
04

개항장 거리

Open port

제물포항이 개항되면서 외국 문물이 처음 들어온 곳, 개항장에는 그 오랜 역사가 깃든 건물과 감성적인 상점들이 여기저기 자리하고 있다. 옛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개항장 거리를 걷다 보면 고풍스러운 문화재를 비롯해 카페, 공방, 사진관, 소품샵 등 개성 넘치는 가게들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밤에 이 거리를 걸으면 낭만적인 시간 여행을 떠났을 것 같다. 빨간 벽돌이 인상적인 관동교회와 아기자기한 책방 문학소매점의 야경이 유독 아름답다.

| 주소 |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일원





05

트리플스트리트

Triple Street

트리플스트리트는 이름대로 크게 3개의 거리로 구성된 복합쇼핑몰이다. 패션 스토어가 들어선 쇼핑 거리 ‘그라운드 스트리트’, 유명 맛집 다이닝 거리 ‘언더 스트리트’, 휴식 공간 옥상 거리 ‘파크 스트리트’로 구분된다. 나란히 줄지어 있는 A·B·C·D 4개 동 천장마다 형형색색의 색종이로 하늘길을 표현한 ‘웨이브스카이’가 매달려 있어 천천히 걸으면서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이곳의 일몰 포인트는 D동 옥상정원. 해가 지는 시간이면 옥상정원으로 향하자.

| 주소 |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33-4



06

트라이보울

Tribowl

센트럴파크 한쪽에 우뚝 선 트라이보울은 특유의 곡선 디자인으로 존재감을 뽐낸다. 넓은 연못 바닥에 위아래가 뒤집힌 듯한 건물이 놓여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내부에 자리한 원형극장 형태의 공연장과 다목적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밤에는 건물 외벽의 은은한 푸른빛이 연못에 비쳐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

|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



07

G타워

G Tower

IFEZ 본청사로 활용되고 있는 G타워는 2013년에 건립됐다. IFEZ와 인천시청 산하 부서 외 UN 산하 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어 송도국제도시 업무의 중심 역할을 한다. 낮에는 주로 업무 용도로 활용되는 건물이지만, 밤에는 송도 야경을 담은 무대가 되기도 한다. 특히 100m 이상 높이의 29층 하늘정원과 33층 홍보관 전망대에서는 센트럴파크와 포스코타워가 중심이 되는 도시 야경을 발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다.

| 주소 |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08

월미산

Wolmisan Mountain

맛있는 식당과 예쁜 카페가 줄지어 선 문화의 거리, 각종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서해 바다가 한눈에 담기는 모노레일 등 각종 즐길 거리가 가득한 월미도. 하지만 월미도의 진짜 매력은 밤에 더욱 빛을 발한다. 해가 지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불빛들이 한데 모여 멋진 야경을 연출한다. 월미도 중심에 완만하게 솟은 월미산에 오르면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낭만을 즐겨보자.

| 주소 | 인천 중구 북성동1가 125



09

자유공원

Jayu Park

69m 높이의 야트막한 응봉산을 둘러싸고 있는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근대식 공원이다. 공원 한가운데 늪스럽게 서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으로도 유명하다. 봄이면 벚꽃이 만발해 공원 일대가 장관을 이룬다. 여기에 숨은 야경 포인트가 있다. 주차장 옆길에서 이어지는 계단을 밤에 오르면 은은한 조명 덕분에 갠스레 가슴이 설렌다.

| 주소 | 인천 중구 송학동1가 1-1





영종 바다의 즐거움

COAST TO COAST

지난여름, 영종도 동·서쪽 해변은 시끌벅적했다.
동쪽에서는 바다를 보다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됐고,
서쪽에서는 더위를 날리는 축제가 열렸다.
반짝이는 윤슬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영종의 여름 바다를 만나보자.

EAST COAST

영종진 해안 둘레길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57-3

구간 레일바이크 입구~
웨스턴 그레이스 호텔 230m

문의 ☎ 032-456-2977
※강풍·만조 시에는 출입 금지,
자전거·이륜차량은 우회



②



①

③

바다를 가까이 만나는 길

레일바이크와 구읍베타, 숲체험장이 있는 영종도 동쪽 끝 영종진에 최근 즐길 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영종진공원을 둘러싼 해안에 둘레길이 조성됐다. 둘레길은 영종 씨사이드 레일바이크 입구에서 시작해 웨스턴 그레이스 호텔까지 이어진다. 길이는 230m. 그동안 이 구간을 빙 돌아가거나 해변 모래를 밟고 가로질러야 했던 시민들은 둘레길을 반겼다. 덕분에 편하게 해변을 산책하며 바다를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됐다. 쉼터 2곳도 마련돼 잠시 앉아서 시원한 바다 풍경을 바라보기에 좋다. 그것만으로 아쉽다면 썰물에 드러난 갯벌을 살펴보거나 바로 옆에 자리한 영종하늘도시 공원을 거닐어 보자. 둘레길은 영종진을 찾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며 힐링을 선사한다.

- ① 영종진 해안을 따라 조성된 둘레길
- ② 둘레길 조성으로 바다를 더욱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 ③ 둘레길은 씨사이드 레일바이크 입구에서 시작된다.
- ④ 영종진 공원과 길이 이어져 있어 산책하기에 좋다.
- ⑤ 영종진 공원 태평루에 올라서면 바다 전경을 담을 수 있다.




⑤



바다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

을왕리와 왕산, 마시안까지 유명한 해수욕장이 즐비한 영종도 서쪽 해안. 그중에서도 왕산은 조금 특별하다. 해수욕장에서 조금만 더 가면 가지각색의 요트가 드나드는 항구 왕산마리나가 있다.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이곳을 무대로 지난여름 ‘용유바다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는 여름 바다에서 젊음과 낭만을 느낄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IFEZ가 주최했다. 주제는 ‘요트&하이볼’로 선정하고 크게 요트 승선 체험과 하이볼 체험으로 구성했다.





WEST COAST
용유바다축제
‘요트&하이볼 페스티벌’

주최 IFEZ
주관 인천중구문화재단
장소 왕산마리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980-1)
행사 요트 체험, 하이볼 체험, 물놀이장, 아트마켓, 해양 전시, 콘서트 등

평소에 접하기 힘든 요트를 타볼 수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서둘러 신청을 한 뒤 설레는 마음으로 요트에 올라탔다. 10명 남짓 탑승객을 태운 요트는 항구를 출발해 영종도 앞바다까지 나아갔다가 돌아왔다. 1시간가량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은 탑승객들은 새로운 경험에 즐거워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하이볼 클럽’이 열렸다. 바텐더들이 화려한 각테일 쇼를 선보이며 관람객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물놀이장에서는 ‘물총대전’과 ‘얼음 속 보물찾기’ 이벤트가 진행됐고, 체험 부스에서는 ‘달고나 만들기’, ‘패션 타투’, ‘바람개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더위가 조금 잦아든 오후 6시에 맞춰 개막식이 진행됐다.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된 개막식은 축제명을 현수막에 쓰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순서로 이어졌다. 이후 김진용 IFEZ 청장은 “용유바다축제를 통해 영종국제도시와 인천시가 ‘세계적인 관광-레저 허브 도시’로 도약하길 바란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축제 하이라이트, 축하공연 무대가 펼쳐졌다. 가수 리듬파워, 키썬, 영지, 드림노트, 나태주, 바다가 차례로 무대에 오르며 뜨거웠던 여름밤을 장식했다.



◀Go to  **YouTube**
지금 바로 휴대폰으로 스캔해보세요!
IFEZ 유튜브에서 용유바다축제의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 1 아이들은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물놀이장에서 ‘물총대전’을 즐겼다.
- 2 시민들은 평소에 접하기 힘든 요트를 체험하며 축제를 즐겼다.
- 3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4 가수 리듬파워, 드림노트, 바다 등이 축하공연 무대를 장식했다.

MINI INTERVIEW



“**최리안·최영은** (중구 중산동)
영종도에 살고 있는데, 거리에 걸린 축제 홍보 현수막을 보고 찾아왔어요. 왕산마리나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오자마자 체험 부스에서 석고방향제를 만들어봤어요. 맛있는 푸드트럭 음식도 먹고, 신나는 공연도 보니까 너무 신나요.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ONE OF A KIND POTTERY

내가 만드는 하나뿐인 도자기

글로벌센터 녹청자 도예 강좌

IFEZ는 관내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지원과 문화사업을 펼치는 ‘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녹청자 도예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해 한국 전통문화를 널리 알렸다.



외국인에게 전하는 한국의 매력

IFEZ 청사 1층에 위치한 글로벌센터. 외국인이 하나둘 몰려들더니 어느새 20여 명이 들어찼다. ‘녹청자 도예 강좌’를 신청한 수강생들이다. 글로벌센터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전하고 인천의 대표 문화유산인 녹청자를 알리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수강생들은 둥그렇게 놓인 각자의 자리에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한곳을 바라본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인물은 도자기 장인. 이번 강좌의 강사이자 도예가인 김갑용 씨가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진다.

GLOBAL CENTER INFO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IFEZ 글로벌센터 G타워 1층
운영시간 월~금 09:00~19:00
문의 032-453-7350
이메일 ifezglobal@korea.kr



◀ Go to  YouTube

지금 바로 휴대폰으로 스캔해보세요!
IFEZ 유튜브에서 글로벌센터 프로그램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MY OWN ARTS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

“오늘은 도자기 바닥 부분과 디자인 작업을 이어갈 겁니다.” 지난주 첫 번째 강좌에서 각자 기본 형태를 완성해 이번 시간에는 다음 단계에 들어선다. 외국인 수강생들은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책상 위에 두고 강사의 말에 집중한다. “바닥 가운데 부분을 파내야 합니다. 잘못하면 형태가 망가질 수 있어 조심히 다뤄야 해요.” 주의사항을 전해 들은 수강생은 각자 작업에 돌입한다.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바닥을 파내보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다. 고르지 않게 울퉁불퉁 패인 것이 대다수. 다시 흙을 반죽해 보수 작업을 하는 이들도 있다. 결국 강사가 직접 나서 하나하나 손을 대며 모양을 잡아준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만들지 못하지만 해당 작업이 필요한 이유를 경청하며 자기 작품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1시간에 걸쳐 어렵게 완성한 바닥 작업. 이제는 작품에 멋을 내는 차례다. 도자기 바닥이나 옆면에 문양을 새겨넣는 디자인 작업으로 각자 어떤 문양을 선택할지 고민한다. 빗살무늬, 물결무늬, 나뭇잎, 물고기 등 각자 출신이나 취향에 따른 가지각색의 문양이 그려진다. 자신만의 하나뿐인 도자기를 만들 생각에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너무 깊게 새기면 도자기를 구울 때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강사의 충고에 수강생들은 더욱 집중한다.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됐다. 혼신의 힘을 다해 작업한 결과물을 바라보며 아쉽거나 만족한 표정을 짓는다. 각자의 작품은 일주일 뒤 마지막 시간에 비로소 도자기로 완성될 예정이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잔뜩 기대한 마음으로 다음을 기약한다. 이날 참석한 외국인들은 “녹청자의 오묘한 색깔과 질감이 아름답고 매력적”이라며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려보는 체험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MINI INTERVIEW



1. **Yessica Nicolas**
예시카 니콜라스 (멕시코)

처음에는 흙을 만지는 느낌이 이상했어요. 물경물경한데 이게 나중에는 단단한 도자기가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영어와 한국어 모두 잘 못해서 따라가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만든 것 같아요.



2. **Nagendran Rajalingam**
나겐드란 라자린감 (인도)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니다. 도자기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번 강좌를 통해 만드는 과정을 세세하게 배울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네요.



3. **Firsova Galina**
피르소바 가리나 (러시아)

처음에는 제가 도자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두려웠는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지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3회차가 너무 짧은 것 같아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4. **Shakira Daniel**
샤키라 다니엘 (영국)

도예 명장님을 만나 뵈서 영광이었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참 어려웠지만 그만큼 재미있고 뿌듯했습니다. 송도에 2년간 살면서 글로벌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을 수강했어요. 다른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기대합니다.

내가 그린 IFEZ
<IFEZ 저널> 색칠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송도국제도시



마감 2023년 9월 30일(토)까지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 성함, 주소, 연락처, 컬러링 사진을 보내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2023년 IFEZ 컬러링 이벤트, 국제도시를 여러분만의 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사진을 찍어 응모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23분께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아메리카노)을 선물로 드립니다.



강연정(연수구 송도동)



강지완(남동구 구월동)



김기환(노원구 공릉동)



김다나(서구 심곡동)



김민화(연수구 송도동)



김지현(전주시 우아동)



박효선(중구 덕교동)



오연미(중구 운서동)



유다형(서구 심곡동)



장미혜(중구 중산동)

112호 컬러링 당첨자를 소개합니다
<IFEZ 저널> 112호 컬러링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IFEZ가 오색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113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